

일주문



북한동포·외국인 노동자 돕기 서예전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 스님은 11월 1~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전시장에서 '북한동포와 외국인 노동자 돕기 서예전'을 개최한다.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천태종성전> 전달 정산 천태종 총무원장 스님은 10월 30일 중국 북경 영광사에서 중화종교문화 교류협회 협소문 회장에게 <천태종 성전> 5000원을 전달했다.



국제포교사 선발고시 실시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10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2회 국제포교사 선발고시를 실시했다. 고시에는 총 41명이 응시했다.



조계종 남북불교교류특별보좌관 前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스님이 조계종 남북불교교류특별보좌관에 임명돼 10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봉은사서 공개특강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0월 30일 서울 봉은사 법당에서 '한국의 자연과 전통 문화-산사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공개 특강을 했다.



장례비즈니스프로그램 개설 손동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2008년 1학기부터 다도·사찰음식전공 및 특별과정인 장례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이전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02)3672-7181입니다.

社告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 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 주제: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2007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2008년 1월 19일자 본지 및 불교뉴스
● 문의전화: (02)2004-8282
● 이메일 접수: jiyang@buddhanews.com
● 시상 부문 -대상(유마상) -우수상(문사 사장상) -특별상

전원주 여운계 선우용녀 약천사 뒤 흔들다

10월 23일 수재민 위로공연서 열창으로 분위기 up

"저 건강해 보이죠? 제주도 와서 열창 정도 있으니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햇빛 바람 바다 모든게 좋잖아요. 특히 약천사에 와 보니 더 큰 기운을 얻게 됩니다. 이제 곧 연기활동도 할 겁니다. 계속 사랑해 주세요."



여운계, 선우용녀, 전원주씨(사진 왼쪽부터)

최근 신장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탤런트 여운계씨가 제주도 약천사 불자들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연기 재개를 약속했다. 10월 23일 열린 '제주 지역 태풍 나리 피해 수재민 위로 공연'에서다. 약천사회주 해인사가 승초청 철야 용맹정진에 앞서 마련한 이날 무대에는 불자탤런트 3인방인 여운계씨와 전원주, 선우용녀씨가 나란히 올랐다.

전원주씨의 뒤편에 약천사 지하 공연장은 웃음의 도가니가 됐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여운계씨에게 넘기자 아직 병색이 다 가지지 않은 여운계씨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약천사에서 기운을 받아 더 열심히 살겠다"며 "모든 불자들의 건강을 기원하겠다"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선우용녀씨는 "절에서 이런 행사가 많이 열려야 우리 불교에도 미래가 있다"며 "이런 행사가 말로 신행의 양념이니, 우리도 양념 노릇을 특별히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녁 8시부터 만담꾼 '순이'가 한껏 분위기를 띄우고 대금산조 판소리 '십봉사 눈뜨는 대목' 아쟁산조 등으로 불이 잔뜩 오른 상황에 해인 스님의 소개로 무대에 오른 3인방은 거침이 없었다.

간단한 인사사 끝나자 사회자가 노래 한 곡

을 부탁했고 마이크를 받아 전원주씨가 특유의 표정을 지으며 "에이그, 웬 노래를 하라고 그러냐? 하라면 하지 뭐. 우린 '정실홍실'이야. 나랑 애(여운계)랑 이 정실홍실로 세계일주를 했다가. 진짜야. 하와이 대원사가 문을 열었을 때 그때 초창되어서 나랑 여기가 여운계랑 둘이 '정실홍실'을 불렀는데 그게 아주 히트였다고... 내가 키나 얼굴은 좀 안 되도 노래는 애들보다 한참 낫거든" 이렇게 사실을 앞세우는 사이 반주가 나오자 열린 입담을 수습하고 우아한(?) 무용까지 곁들이며 노래를 불렀다. 세계일주를 했다는 전원주 여운계 두명의 노래에서는 녹슬지 않은 옛날 실력이 묻어났다. 이어 선우용녀씨는 "만남"을 열창했다.

참가한 사부대중이 머리위로 손을 흔들며 선우용녀의 열창에 호응했고 이렇게 무르익은 분위기는 약천사 주지 고봉 스님까지 나와서 한 곡 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바라밀예술단의 미술 색소폰 등 공연이 이어지며 흥을 더했던 약천사의 수재민 위로공연은 밤 11시가 되어서야 막을 내렸지만 불자들이 지역 주민들은 발길 돌리기를 아쉬워했다.

제주/글·사진=임연태 기자

조계종 스님 48명, 호스피스 교육 실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불교회는 10월 23-25일 조계종 스님 48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했다. 지도법사 무구 스님은 "보다 체계적인 호스피스 교육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월악산 덕주사 산사음악회 한마당



월악산 덕주사가 10월 20일 덕주공주 위령제를 시작으로 흥겨운 산사음악회 한마당을 펼쳤다. 덕주공주는 신라 경순왕의 첫째 딸로 신라가 망하자 월악산으로 들어와 마애불(보물 제406호)을 조성한 인물로 전해진다. 대한불자기수회 김중국 회장의 사회로 불자기수 풍산, 마야, 데이라이트 등이 출연해 흥을 더했다.

환경수호를 위한 대승보살계 수계법회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진봉)은 10월 25일 대전 평송수련원 대강당에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혜공 스님, 부총정 혜승 스님, 승정원장 대만 스님을 상좌상으로 영접 임원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환경보호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진봉 스님은 대회를 통해 "후손을 위한 환경보호 운동을 펼치는 한편 불교를 비방하는 조선일보 구독 거부 운동을 종단 정책차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02)937-0343

전통조계종 수륙재 봉행



대한불교 전통조계종(총무원장 능인)은 10월 9일 청주 대청맹공원에서 수륙재 및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법주 혜천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능인 스님은 "일체중생의 화합과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고 말했다. (054)382-3363

"더 나은 템플스테이 위해 노력할 것"

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마가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이 10월 17~21일 태극으로 다녀온 '템플스테이' 운영자 해외 연수에 대해 사무국장 마가 스님은 "이번 연수의 가장 큰 소득은 태극의 불교전통과 템플스테이 현황을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우리 템플스테이의 현재 모습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는 점이라고 꼽았다. 스님은 "부처님 당시의 전통이 원형 그대로 살아있는 아름다운 불교 전통도 환경이었지만 태극의 정갈한 명상센터는 감동 그 자체였다"는 소감을 밝혔다.

태극의 명상센터를 순례한 후 스님은 우리나라 템플스테이 시설과 프로그램 등에 대해 반성하게 됐으며, "템플스테이가 훌륭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운영자들부터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자들의 질적 변화에 템플스테이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특히 불과 30년 만에 세계 최대 명상센터로 성장한 것만 봐도 운영자들의 국제 감각이 높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더 나은 템플스테이 운영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태극/글·사진=공동취재단

정현 스님 국민훈장 동백장 서훈

조계종 호법부 상임감찰...교정활동 공로로



조계종 호법부 상임감찰 정현 스님이 10월 26일 국민훈장 동백장을 서훈했다. 26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정현 스님은 30여 년 간의 교정활동 공로로 대통령 표창인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현재 검찰청 감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님은 "교정활동에 힘쓰고 있는 스님들이 많은데 제가 큰 상을 받게 돼 부끄럽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병원법당, 병원불심 구심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립북부노인병원 법당 개원한 해성 스님



"질병과 노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습니다." 10월 22일 서울시립북부노인병원에서 병원법당 개원법당을 봉행한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사진)은 밝은 얼굴로 어르신들을 맞이했다. "병원법당이 있어야 병원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과 병원봉사 직원들의 불심

을 모을 수 있습니다.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의미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연화원을 통해 불교전통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으로 호스피스, 다병인 등을 키워온 해성 스님은 앞으로 병원법당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자비행'을 실천하도록 돕겠다는 다짐이다. "환우들은 간절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제 북부노인병원에서도 환우들과 가족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량을 꾸려나갈 것입니다." 김강진 기자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이전 개원 대법회

일 시: 불기2551년 11월 18일(음 10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장 소: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고원사

제1회 종단 중도 연수교육 실시 공고

일 시: 불기2551년 11월 16일(음 10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
장 소: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고원사

제3회 산림 수계 대법회

일 시: 불기2551년 11월 18일(음 10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
장 소: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고원사

제3회 법계고시 시행 최종공고

일 시: 불기2551년 11월 18일(음 10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
장 소: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고원사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법계고시 최고위원회 위원장 각 암 총무원장 능인 함장
문의전화 054)382-3363,3397 / FAX 054)383-5005

2007년 불교교육능력평가를 위한

제6회 연합회 포교사고시 실시 공고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는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자로서의 기본 소양, 불교교리의 이해, 사회봉사 참여의식, 불자로서의 가치관 등에 대하여 불교교육능력 평가고시를 시행하여 실천불교를 위한 정법포교의 선구자역할을 할 불교포교사를 배출하고자 제6회 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함

포교사고시 응시대상

· 연합회에 등록된 교양대학(교육과정 1년 이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시험일시

· 2007년 12월 2일(일) 오후 1시 ~ 오후 6시 (필기시험 및 면접)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07년 10월 29일(월) ~ 11월 10일(토)

응시장소

· 박문각행정고시시험원(서울 종로구 조계사입구, 제일은행 본점 뒷편)

포교사 고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수계절 사본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진 4매(반명함판)

응시료

· 응시료 60,000원 (국민은행 023-01-0566-256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접수방법

· 학교별 일괄접수

접수유형

· 서류전형 → 1차 시험(필기시험 및 면접) → 최종합격자발표 → 최종합격자연수 및 품수

합격자발표

· 2008년 1월 10일(개별 및 학교별 통지)

문의

· 연합회 사무국 TEL 02)734-9595

·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 신규가입한 교육단체 및 교양대학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불교 교육단체 연합회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4-9595 FAX 02)732-1207